



# 무서운 성병을 알자

〈제11회〉

## 성병 예방, 어디까지 와 있나 과 대 회

고도로 발달한 문화생활과 더불어 쇠퇴일로에 있는 어느 전염병들과는 달리 망국의 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성병은 세계각국의 적극적인 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우주를 왕복하는 인간의 지혜와 성병박멸을 위한 막대한 보건예산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병의 퇴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 중두나 DPT처럼 완벽하게 예방되는 적극적인 예방수단이 없다.

둘째 은밀한 접촉으로 전염하므로 보건자의 격리와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째 색스는 곧 프라이버시이므로 전염원을 끝까지 추적함에 어려움이 있다.

네째 아직도 성병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환자의 솔직한 협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환자로써 노출되기를 꺼린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여성에 있어서 임질은 거의 무증상이므로 스스로 성병에 걸렸음을 인식하기 이전에 타인에게 옮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일 것이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구미선진제국에선 이같은 여성보균자의 색출불능으로 사랑의 열병 VD가 요원의 불길처럼 무섭게 번져가고 있다.

그래서, 10여년전부터 이들 여러나라는 전염원인 보균자의 색출, 박멸이라는 일반적인 방역원리보다 면역성의 부여라는 차원에서 이 몸쓸 전염병의 뿌리를 뽑는 대책을 강구중이다. 즉 근착 외신에 의하면 예방주사 한대로 홍역이나 천연두처럼 성병에 대한 일반적인 면역이 일생동안 지속되는 특수한 백신을 개발하려고 열심히 연구중이다. 이같은 신약의 생산, 판매는 곧 벼락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계각국의 유명제약회사들은 제각기 VD 예방주사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전 미국 보스톤에서 열린 「항생제 및 화학요법에 관한 심포지움」에 보고된 여러 연제 가운데 문제의 성병예방들이 몇가지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 워싱턴대학 시글교수가 발표한 「임질백신의 임상실험에 관한 연구」란 논문이 우리들의 관심을 끈다.

임질을 일으키는 임균은 외형상 콩팥모양의 세균이 두개씩 짝지워

진 쌍구균의 형태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단순히 사이 좋게 나란히 짝지워져 있는 듯한 이 세균을 전자현미경으로 1백만배 확대해서 보면 세균의 표면에 문어발처럼 무수히 달려있는 돌기가 서로 엉켜 그런 특색있는 커플을 형성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 실뿌리 모양의 돌기가 임균에 대한 항체를 유도하는 항원으로 이용된다. 일반적인 세균 즉 박테리아는 원래 식물(植物)에 속하는 원시생물이므로 이 돌기는 일종의 실뿌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임균이 남성의 요도나 여성의 질같은 인체의 보드러운 점막에 도달하면 문제의 실뿌리가 그곳에 거미줄처럼 달라붙어서 서서히 생명의 젖줄인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일종의 세균 뿌리인 임균의 세포막 돌기가 항원으로 유용하다는 사실이 시글교수의 연구에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것으로 백신을 만들어 접종한 결과 임균에 대한 면역항체가 거의 10배나 증강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시글교수의 방법으론 임질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 미흡했다. 한편 핏츠버그대학의 찰즈 브리튼교수의 연구는 좀더 실용적이었다. 그는 시글교수의 방법으로 만든 3천 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과감하게 주사했던 예방주사를 맞은 6명의 경우 요도에 살아있는 임균을 주입하더라도

단 한 사람도 임질에 걸리지 않았음을 관찰, 이 사실을 학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임질을 이것으로 정복했다고 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 예방주사에는 부작용이 많아서 높은 열과 구역질, 주사부위의 심한 통증, 그리고 관절염 따위를 유발하는 인자의 제거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두번의 주사로 최소한 3개월이상 임질에 거뜬히 면역이 생긴다는 가능성은 확인된 셈이므로 역시 플레이보이들에게 희소식이 될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좀더 연구과정을 거쳐야만 현실적으로 실용성을 발휘할 것이므로 그때까진 재래식 소극적방법을 답습하는 도리밖엔 없는 일이다.

현재로서 성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러하다.

첫째 부부이외의 불결한 성교접은 절대로 피한다. 천만번 지당한 말씀이지만 성욕은 성적도발에 대한 즉흥적인 본능의 발작이므로 이런 몇적은 제물을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다.

둘째 콘돔의 착용이다. 콘돔은 피임뿐만 아니라 성병의 예방에도 가장 값싸고 확실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임질을 막아내는데 탁월

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매독에까지 철통같은 수비기능은 발휘하지 못한다. 물론 콘돔이 뚫어지지 않았을 때만 제구실을 다할 수 있고 실지로 성교도중 콘돔의 파손은 흔히 일어나므로 콘돔의 2중착용, 즉 속의 것은 귀두부까지만 덮고 겹에 있는 것은 풀 커버로 하는 덧씌움의 방법이 권장할만하다.

세째 아무리 콘돔을 착용했다라도 접촉된 부위는 비누질해서 깨끗이 씻는 일이다. 섹스는 궁극적으로 「피로하지만 행복한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곧 수면에 떨어짐이 보통이나, 그에 선행해서 조속히 욕실로 달려가 성기는 물론이고 입속까지 씻어내서 깨끗이 닦으면 매독의 위험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가 있다.

여성의 경우는 항생제나 화학살균제가 함유된 질정을 성교후 삽입하면 성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일본학자의 보고가 있다. 물론 깨끗이 씻음은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겠다.

네째 부부이외엔 가급적 농도질은 페팅은 삼가할 일이다. 역학조사에 의하면 공포의 성병, 매독은 흔히 항간에서 VD 안전지대라고 믿고있는 구강으로부터 옮겨받는 일이 많으며 또한 여성들의 오럴 페팅등 색다른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는 유흥가와 타이페이식 이용업

소에서 정상적인 성교없이 구강에  
무만으로 임질에 걸리는 남성이 적  
지 않다.

다섯째 성교전에 항생제를 미리  
복용 또는 주사해두는 방법이다. 이  
때 주력부대인 임균은 말할 것도 없  
거니와 그와 뇌동침입하는 여타 세  
균들, 그리고 가능하면 매독균까지  
도 능히 박멸할 수 있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그 약물이 섹스매 이틀  
고약한 병균들을 능히 몰아낼 수  
있을만큼 미리 충분한 유효혈중농  
도에 도달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런 상태가 만 72시간 지속되도록  
투약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방법은  
의학에 웬만큼 전문지식이 없고선  
불가능한 수단이다.

이같은 비상수단이 빛나갈 경우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성병균이 나  
타난다는 것을 염두에 뒤야하는 것  
이다. 치밀한 사전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불편이 따르지만 병균이 교  
두보를 확보하기 이전에 박멸한다  
는 적극적 방어수단임엔 틀림이 없  
다. 즉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된다  
는 이론을 활용한 방법이다. 가장  
견장할만한 방법은 성교 3, 4 시  
간전에 페니실린 4백만단위를 주  
사하는 초강경책이다. 페니실린 말  
고도 항균력이 뛰어난 우수항생제  
들이 많지만 그들은 매독균에 대해  
거의 무력하다는 결점들을 안고있  
어 예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어찌됐건 이와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완전무결하게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의로기관을 찾  
아 정밀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약제도 쓰지 않았을 때,  
즉 프리한 상태라면 성적접촉이  
있든지 72시간후 요도분비물검사  
나 요점사로 임질의 감염여부를 알  
아본 후, 다시 접촉후 2주일뒤 요  
점사로 잠복기가 긴 비특이성요도  
염의 감염유무를 확인한다. 7~8  
주일후에는 최종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 매독이 있는지 체크하면 성병  
에 대한 모든 근심걱정은 깨끗이  
떨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갈  
은 검사는 항생제를 무모하게 복용  
했을 경우 병균의 잠복기간이 불규  
칙해지기 때문에 전강의 체크가 곤  
란해진다. 성병환자들이 제멋대로  
쓴 복용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치  
료가 어렵게 되는 경우를 종종경험  
하는데 이점을 유의했으면 좋겠다.

성병은 의료보험의 진료대상일 뿐  
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검  
사하고 또한 치료까지 봉사하고 있  
으므로 돈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무  
모한 자가치료를 기도할 이유는 없  
는 것이다.

성병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둘  
러 치료기관을 노크하도록, 진정한  
용기를 비노기과 의사로서 긴히 충  
고하는 바이다. <끝>

<필자=광대희비뇨기과의원장·의박>